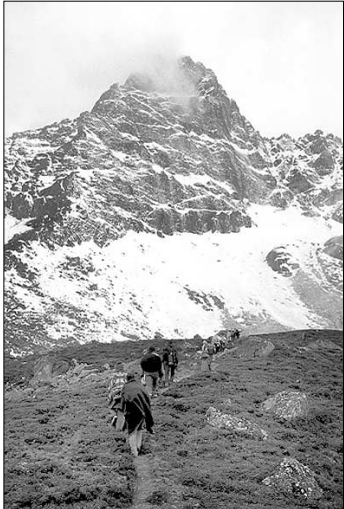


# 티베트 일곱 아이들 14일 히말라야 대장정

1951년 9월 9일 중국이 티베트 라사를 점령한 이래 해마다 3,000명 가량의 티베트인들이 고향을 떠나 히말라야를 넘는다. 희망을 찾아서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달라이 라마다. 그가 없다면 티베트인은 티베트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를 향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은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을 달라이 라마의 품으로 보낸다.

이 책은 지언이가 2000년 4월 15일부터 14일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 다람살라로 달라이 라마를 찾아 가는 돌커(6), 페마(7), 돈돌(8), 치메(10), 락파(10세), 탐담(10), 롱장(15) 등 일곱 티베트 아이들의 눈물 어린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현실을 들려준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봉우리를 오르는 티베트의 아이들.

1부에는 그 아이들이 왜 고향과 조국을 떠나는데 대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다. 돌커와 언니 치메는 비싼 학비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페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늘 엄마와 페마를 때린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페마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에서 페마를 구하기 위해 페마를 인도로 보낸다.

승려 립장은 중국 공안원을 앞에서 달라이 라마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2부에서는 가이드 니마와 함께 일곱 아이들이 티베트의 수도 라사를 출발해 히말라야를 넘는 대장정이 펼쳐진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탈출이다. 가족 곁을 떠난 셋째 날 밤, 여섯 살 난 어린 동생 돌커를 잘 돌봐 주라던 엄마의 당부 때문에 정자 자신의 힘겨움은 까맣게 잊고 있던 치메가 동생이 잠들자마자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깊은 가파르고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높은 산, 가파른 길, 깊은 물과 싸웠어요. 영영 울면서요.”

이렇듯 자유와 희망의 길에 도달하는 과정은 고단하다. 고산증과 폐고혈, 좁음, 차디찬 강물, 이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유의 길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마침내 험난한 고난의 길을 넘어 달라이 라마의 품에 안긴 이들은 지금 대부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어린이가 마음에 정착, 티베트의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김수령 기자 jkim@buddhapia.com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 유영미 옮김 | 지식의 숲 | 1만3천원

# 경전의 역사 한눈에 ‘쑥’

성립·발전·분화 과정 짚고 사상·특징 해설



경 이야기  
와타나베 쇼코 지음  
지성 스님 옮김  
우리출판사 | 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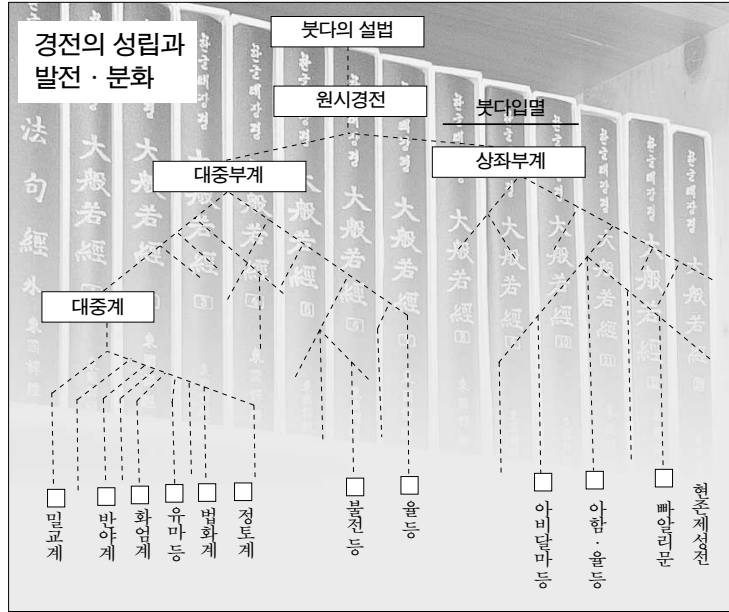
“불교 경전은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을까? “경전에 적힌 가르침은 전부 부처님 말씀일까?”

흔히 팔만 사천 법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 양이 방대한 만큼 많은 경전으로 나뉘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불경(佛經)에는 비유와 설화 등이 가득하고 소설과 희곡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경은 단순히 한 종교의 성전(聖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종교문화이자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중요도에 비해 불자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사실 그리 깊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워낙 경전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대부분의 신도들은 <인아심경>이나 <금강경> <천수경> 등 예불의식에 관련된 경전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경전은 어떻게 성립, 전승된 것일까? <불타 석가모니> 등의 저서로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불교학자 와타나베 쇼코(渡邊昭宏)는 <경 이야기>에서 경전의 성립과정과 각 경전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경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우선 1부에서는 경의 성립과정과 현존하는 불교성전, 경의 형식과 실례를 살펴 고 있다. 1장 ‘경의 성립’에서는 경이란



무엇이고 불교 경전이 성립되는 과정과 발전, 분화 과정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경전의 성립 과정에 대해 흔히 알려진 것은 ‘결집’이다. 45년간의 설법 후 부처님이 입멸(71원년 480년)하자 제자들은 부처님의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을 막고 교단을 확립하기 위해 일로 전하여 내려오던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경전편찬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모두 4차례 걸쳐 이뤄지는데 이를 결집이라고 한다.

이후 교단 내부에서 이설(異說)이 발생,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분열되고 상좌부나 대중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이 새로운 경전을 제작하고 자신들을 ‘대승’이라 불렀다고 지언이는 설명한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더욱 분열되어 밀교가 출현하게 됐다는 것이다.

2장 ‘현존 불교성전’은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이 중국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번역돼 가는 과정을 알려준다. 또한 60세가 넘어 경, 율의 원전을 구하기 위해 서북인도를 여행한 법현 스님과

9년간 역경사업에 매진한 구마라집 등 불경의 한역(漢譯)에 앞장선 수행자들을 소개한다.

3장 ‘경의 형식과 실례’에서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담은 <전법륜경> <열반경> 등 대·소승을 아우르는 경전을 예로 들며 경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현존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반야경> <화엄경> <유마경> <승만경> 각각에 담긴 사상과 특징을 해설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화경>와 <정토삼부경>에 대한 고찰을 담아 경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경전의 성립 과정에 대한 많은 이견(異見)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경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언이 와타나베 쇼코 박사는 일본 동양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양문고 연구원으로 일했다. 책을 옮긴 지성 스님은 현재 운사 승가대학에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출가 수행 뒷이야기

구례 천은사 주지 금중 스님이 부산·광주 불교방송을 통해 진행한 ‘금중 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해 ‘다시 태어나도 이길’ 제목의 책으로 묶었다. ‘금중 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는 대부분의 라디오 강좌가 경전을 해설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와 수행생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청취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다.



다시 태어나도 이길  
금중 스님 지음  
광문각 | 1만원

2년 3개월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내용 중 출가 사연과 수행담, 독자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활동, 재소자 교화 등 다양한 포교활동을 보여주는 일화를 간추려 담았다.

특히 병원에서 만난 한 수녀님이 ‘참된 부처님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 그림 편지가 눈에 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수녀님을 짊어 초대하고, 크리스마스나 특별미사에는 스님이 직접 성당을 찾은 등 함께 ‘도반’의 길을 걷는 모습에서 종교를 초월해 진리를 향하기는 수행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 깨달음의 길 티베트 스승에게 묻다



티베트 스승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월 스님 옮김  
하늘호수 | 1만8천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도 불법(佛法)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도 없이 목적지를 향하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편역, 출간된 <티베트 스승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은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돼 준다.

초월 스님이 편역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로 알려져 있다. <람림>은 티베트 불교 수행의 나침반으로 여겨지는 책이다. 티베트에 전해지는 대표적 <람림>은 8편.

이번에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 <람림>은 종카빠 대사의 <대보리도차제론>과 파공파 립포체의 <보리도차제 법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카빠 대사의 <대보리도차제론>은 인도의 대학자이자 스승인 아미타가 1천년 전에 티베트로 건너가 그 곳에서 불법을 펼치면서 저술한 <보리도차제론>을 기초로 저술한 것이다.

<대보리도차제론>은 티베트불교에서 6백년 이상 수행의 단계를 충실히 일러주는 지침서로, 티베트 수행자들의 필독서로 애송돼 왔다.

<람림>은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1편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를 포함해 제2편 ‘초심자를 위한 하사도차제(下士道次第)’ 제3편 ‘수행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자를 위한 중사도차제(中士道次第)’ 제4편 ‘수행이 익숙해진 자를 위한 상사도차제(上士道次第)’로 나뉘어 상세히 설명한다.

마음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갖춰 실천하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람림>은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고 상세히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음공부에는 월반이 없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초월 스님은 “이 책이 소승 대승 법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분별심을 높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통하는 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영양!  
전국 대산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적한 <마로보인 선문영양>  
전30권 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Wellbeing Life  
KHSAs 한국건강식품협회  
장해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AloHa  
향적당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 선농BIO식품(주)  
■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제1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불교전문 출판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원고를 공모합니다.  
▶ 상금 ● 대상작 : 1편 800만원 ● 최우수작 : 1편 500만원 ● 우수작 : 3편 300만원  
공모요강  
▶ 공모분야: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명상, 역사, 문화, 수필, 만화, 청소년, 아동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원고로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단 시, 소설, 학술서는 제외)  
▶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 가능함.  
▶ 제출방법: 새로운 내용의 글로써 참신하고 진지하며 대중성이 있어야 함. 주제와 소재, 서술형식은 자유.  
▶ 원고의 상태: 100% 완성된 원고 또는 80% 이상 완성된 원고에 한함(단 80% 원고는 향후 3개월 이내에 100% 완성된 원고를 제출함을 전제로 함)  
응모방법  
▶ 원고제출: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출판원고 1부를 별도로 제출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단 컷, 사진, 그림이 있는 경우는 매수와 상관없이 단행본 1권 분량이 되어야 함)  
▶ 기 타: 원고 앞면에 책제목(가제), 원고개요(원고매수 5~10매), 저자소개(이름, 나이, 성별, 전공, 저역서 등 구체적인 소개), 응모분야를 별도로 명기할 것. 저자소개는 필명으로도 가능함(단 민족사에서 본명을 의뢰할 경우 밝혀야 함)  
▶ 원고마감: 2005년 10월 30일까지  
▶ 보내는곳: 130-11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도서출판 민족사  
E-mail: minjoksa@chol.com ☎ (02)732-2404  
▶ 당선발표: 2005년 11월 넷째주 불교계 신문에 공고 및 개별 연락.  
▶ 참고  
● 당선작은 민족사에서 출판은 원칙으로 함. 출판할 경우 상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인세를 지급함.  
● 표절 또는 출판 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족사에서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필자 발굴을 위해 연 1회 지속적으로 원고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